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7호 발행일 : 2004년 1월 18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남포교회 당회원과의 식사]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작은 발걸음

지난 주 화요일(13일) 저녁 6시에 우리교회 식당에서 남포교회 당회원들과 우리교회 당회원들이 함께 만나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와 교회간의 만남과 교류가 부족한 요즘, 남포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러한 만남이 주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음식은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었고, 식사 시간 이후 조성곤 집사의 찬양도 있었다. 남포교회 박영선 담임목사는

이러한 모임을 준비해준 우리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남포교회에서 후일 이러한 만남을 다시 갖자고 제안함으로 이러한 만남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아주쫄쫄 이러한 교회와 교회간의 만남이 당회원에서만 멈추지 말고 모든 교인들에게로 조금씩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논산육군훈련소 사역 소개]

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작년 12월 28일(주일) 저녁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최희철목사 시무)에서는 훈련병 7,000명이 저녁예배를 드렸다. 인원이 많아서 오후 5시 50분과 7시 10분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은 우리교회 육군훈련소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가스펠 가수인 LOVE의 공연이 있던 후에 정영환 목사가 "여기가 천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훈련병들은 복잡한 강당 안에서 오랜만에 훈련의 긴장을 풀고 공연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였다. 그후에 선포되는 설교시간에는 사뭇 진지한 분위기였고, 많은 훈련병들이 결단의 시간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다.

참석한 훈련병중에서 80-90%가 기존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젊은이들이었다. 변화된 환경과 고된 훈련으로 마음이 열려진 훈련소는 젊은이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지라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는 6주에 한번씩 육군훈련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는 많은 일꾼들을 필요하다고 정영환목사는 말한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로 돕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무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사역은 2월 8일 주일저녁에 있을 예정이다.

(청년부)

청년부 리더 MT 소식

청년부 조직 개편을 통한 팀사역 강화 청년부는 올해부터 사역자들과 부장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많은 돕는 분들의 역할이 지원과 섬김으로 정해지며, 청년부 임원들과 사역팀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조직과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2004년 한해 청년부의 핵심 활동이 되어질 예배와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동아리 조직과 관심별 그룹 모임을 9개의 사역팀과 수십여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임원 팀장의 동역체제와 소그룹 리더 훈련을 통한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예배사역팀, 문화사역팀, 편집사역팀, 선교사역팀, 예배팀, 섬김사역팀, 나눔사역팀, 인터넷팀, 새신자사역팀 으로 나누어진다.

'청년리더쉽의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미 성인의 나이를 넘어서 청년들이 주체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또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훈련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사역팀 가운데 섬김사역팀은 청년부내의 많은 인적 자원들과 전문지식들이 교회 공동체의 네트워크 사역과 연결되어 교회내 각 부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전체의 유익을 위한 사역에 적극동참하는 채널을 열어 연구하는 사역팀으로서 교회공동체와의 연합과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청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해 새로운 많은 도전 앞에서 있는 청년부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직접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윤은성 목사

율법에서 복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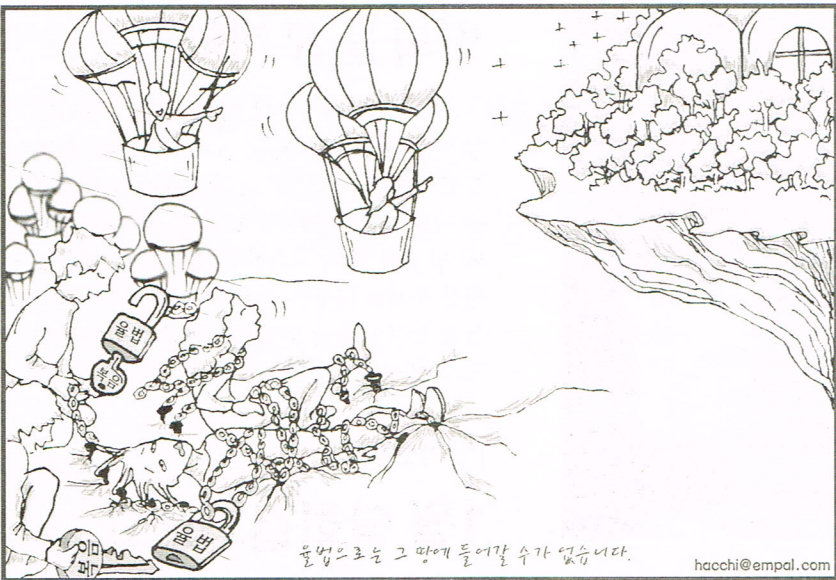
문동학 목사는 지난 주일부터 앞으로 몇 주 간에 걸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동학 목사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설교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과 삶의 분기점을 제공할 것이며, 갈라디아서에 관한 주석들을 미리 참고함으로 설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일은 그 첫 시간으로 갈 1:1-10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No other Gospel)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the Magna Carta, 대헌장)라고 불리며, 종교 개혁가들의 전쟁선전포고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라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Merrill C.

Tenney 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단지 또 다른 유대 종파의 하나로 남아 있었을 것이며, 서구의 사상은 전적으로 이방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모퉁이 돌이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은 개혁가들이 외쳤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과 종교적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세대에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절실하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종교적 율법주의

로 전락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가 종교적 율법주의로 전락해 가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

문이다. 신학교 교수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90% 이상이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율법적 설교이며,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교회 초기에는 복음적 설교가 주로 선포되었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율법적 설교나 복음과 혼합된 율법적 설교가 강단에서 주로 선포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복음적 설교에서 율법적 설교로 바뀐 이유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복음이 여러 해 동안 선포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익숙해짐에 따라 중요했던 복음이 서서히 식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 율법이 가미된 복음이 합리적인 신앙으로 둔갑하여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만이 아닌 성도의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과 은혜에서 서서히 다른 율법적 원칙과 조항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아무리 복음이 99%이고 율법이 1%만 섞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 설교라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썼지만, 갈라디아서처럼 강력하게 아무런 문안 인사나 칭찬이나 격려 없이 바로 질책과 꾸중과 책망으로 곧장 들어간 편지는 없었다. 그만큼 교회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변질된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바울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교회의 명백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오직 복음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지중에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복음이나 은혜가 아닌 율법과 공로 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의 이분법이 전제되어 표현되고 있다면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영적 순결함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신임교역자 인사 : 우동윤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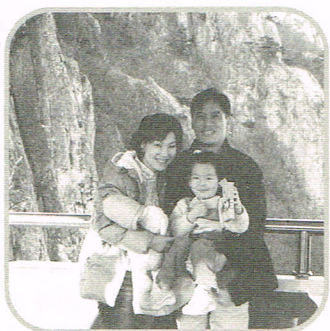
한 겨울 따뜻한 우동 국물처럼...

먼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줄함울]에서 '함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은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 얼큰한 “우동” 국물에 “윤”기 흐르는 면발을 담아 후루룩 들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제 이름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북한산 자락의 연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하남시의 동부제일교회와 인천 주안장로교회를 통해 전임사역을 해오다가, 이번에 주님의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경유한 셈이죠. 그리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며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전향미)와 딸(예림)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는 만난지 3개월 만에 결혼하였지만, 결혼 전 교제기간의 길이와 결혼 후의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는 말씀처럼 저의 가장 큰 위로자요, 제 삶과 사역의 은밀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선교회 계통의 사역에 헌신해오다 직접적인 사역을 내려놓은 이후로, ‘불의 여종이 물의 요정이 되었다’고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저희 딸은 올해 다섯 살로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죠. 유아부 노랑 반에 갓 등록하여 정식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 교우 분들을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갱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이 이루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번식하여 교회를 넘어 세상과 불신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이를 위해 힘써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리더훈련반 개강]

다시 리더 훈련반 개강하다

지난주일 오후부터 리더훈련반이 다시 개강했다. 3주간의 긴 방학 끝에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출석률을 보였다. 김성관 목사의 인도 아래 두어 시간 동안 소그룹 토의그룹인도법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주일반에 이어 화요일 반과 목, 금요일반도 개강하였다.



리더훈련과 나의 신앙 회복

작년 하반기부터 주님의교회는 ‘새로운 양육시스템’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9월부터 ‘리더훈련반’을 개설하게 되었다. 리더훈련반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정으로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교육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40 여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우선 교회내의 직분중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직분을 감당했으며,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베델서서 연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과정을 이수해왔다. 그러나 그저 성경 전체를 몇 번 읽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목사님들의 주일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설교말씀이 좋다, 나쁘다는 평까지 서슴지 않는 교만에 이르러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각오로 리더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아 오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큰 잘못이 있음을 알았다.

그동안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깊은 관찰 없이 피상적으로 이해해 왔으며, 그 결과 나에게 남은 것은 그저 성경을 몇 독 했다는 것뿐이었다. 리더훈련은 정해진 양의 말씀을 매일 읽고 경건의 시간(QT)을 갖으며,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

성애원 가족과의 만남

성애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보육원이다. 어떤 분들은 고아원이라고 부르지만,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고아원이라 불리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없다. 보호 받고 양육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룬 보육원이 있을 뿐이다. 성애원에 가면 큰소리로 반기며 달려오는 싱그러운 눈동자를 지닌 아이들이 있다. 3살 아기부터 대학생 언니 오빠들까지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신나게 지낸다. 기타며 피아노 드럼에 박수로 신명나게 치며 즐겁게 찬송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걸걸한 목소리에 활달한 성품은 소년 같지만, 수줍은 눈을 가진 노처녀 원장이 있다. 전임 원장이 쓰던 넓은 원장실을, 가족들의 휴게실로 개조한 분이 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학원에 보내주고, 대학에도 진학 시킨다.

우리 교우이며 치과 의사인 진인기 집사의 성애원 가족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애원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었다. 진인기 집사는 성애원이 있는 이천에서 개업의로 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성애원을 방문한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흥겨운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정겨운 시간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친다. 10년이 넘도록 무료 치료뿐만 아니라, 매주 만남으로 어느덧 진인기 집사는 성애원의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중 지금은 목회를 하는 가수 조하문 집사와, 교회에서 빵 집사로 불리는 김세은 집사도 있다. 그 후 진 집사와 함께 조하문 집사는 기타를, 빵 집사님은 갓 구운 맛있는 빵을 가지고 성애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김세은 집사는 그 후 지금까지 매 달 맛있는 빵을 꾸밈하게 구워 보낸다. 그리고 방학이면 성애 가족 중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가정 체험실습을 위하여 조를 나누어 돌아와서 집으로 초대하여 1박2일 머물게 하기도 한다. 성애 가족과의 첫 만남 후 성탄절이 다가왔다. 진인기 집사와 김세은 집사는 성애 가족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꼭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와 함께 품명, 색깔, 사이즈 등을 적도록 했다. 그리고 교우들은 기꺼이 산타크로스가 되어주었다. 사랑을 담은 카드로 격려의 말도 해주었다.

이 글을 쓰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이름이 드러나는 몇 사람의 자랑처럼 보이면 어쩌나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었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나누며 사는 삶길 바란다.

성애원 방문을 원하거나, 성애원 가족을 후원하고자 하는 교우는, 031-635-6203 또는 031-635-8660으로 연락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창성 권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창성 권사

순천과 군산 어린이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사랑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순천 SBS 어린이마을 및 군산 신광 모자원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감사의 카드가 군산의 신광 모자원으로부터 배달되어 1층 로비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순천 SBS 어린이마을에서 보내온 카드는 배달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어, 어린이들이 정성껏 만든 카드에 담아 보냈던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신 고마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에 참여 하였던 교우들 중 몇 사람은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개인후원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였다. 자원봉사연결팀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연결팀의 남장희집사에게 문의(016-502-8287)하면 된다.

[상담부 소개]

경청의 사역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청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교회 5층 도서실 옆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토요일 오전에 전화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부원들이다.

전화를 통하여 들려오는 형제와 자매의 고통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아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다. 상담사역이라고는 하지만 조언이나 설교나 충고가 아니라 전화를 통하여 호소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경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상담부원들은 위탁교육이나 자체 계속교육 등을 통하여 일정한 공부를 거친 후 상담사역에 계속 헌신해오고 있다. 상담부원인 이창성 권사는 주님의교회 초창기부터 상담사역은 이재철 목사님과 임영수 목사님의 관심 하에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한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듣는 사람은 적은 오늘날 '하나님의 귀'가 되어 경청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담부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리더훈련과 나의 신앙회복 >> 2면에서 계속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리더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귀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나의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열쇠가 되었다. 매일 QT를 하면서 귀납적 및 연역적 방법에 의하여 말씀을 읽고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말씀 속에 담겨 놓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번 교육을 마쳐도 매일 QT를 하면서 말씀속의 보화를 캐내는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며, 말씀 암송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리더훈련 주일반, 이봉우 집사

청년부흥 기도로 시작한다!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청년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현재 청년 1, 2부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올해 윤은성 목사가 새로이 부임하면서 유상렬 전도사와 팀을 이루어 청년1, 2부의 연합사역으로 새로운 청년사역의 부흥을 꿈꾼다.

그 첫걸음이 바로 토요기도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1, 2부가 나뉘어 진행하던 기도모임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식사교제와 7시 기도모임을 시작하여 한시간 반 또는 두시간 동안경배와 찬양과 메세지와 기도의 시간으로 뜨겁게 진행된다. 청년들의 기도를 향한 열정과 영적 갈급함이 모여져 매주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청년부흥의 현장에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청년 비전 기도회'라고 명명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청년예배와 앞으로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첫걸음을 청년부는 힘있게 걸어가고 있다. 매월 부모와 함께 하는 기도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성의 회복과 불신가정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 비전 기도회를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지도장로님과 지도 부장님들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모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전을 보는 기도회에 많은 기도의 지원과 동참을 바란다.

[중등부 교사 기도 모임]

작은 기도의 불씨가 되어

중등부교사로 봉사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은 교사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주일 아침에 교사회의를 시작하여 각자 아이들 분반공부시간이 끝나고 흩어지면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는 더 깊은 교제가 필요했다.

이러한 목마름을 지난 여름 강릉에서 이루어진 여름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 취침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우리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고 그것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 기도모임을 갖게 되는 기회로 이어졌다.

분반공부가 끝나면 2층 수련실에서 모이기로 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게 되었다. 교사로 봉사하는 분 가운데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늘 부탁했고 우리는 교회 중등부와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내놓는데 서슴치 않았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친밀해지는 가운데 지금도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중등부 교사 4~5명이지만 늘 그 자리를 기뻐하며 달려오는 마음을 서로 읽을 수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주일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교사회의를 시작으로 10시 50분 분반공부로 중등부예배가 모두 끝나면 이렇게 기도모임으로 시작한다. 1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3부 예배를 드릴 분들은 예배실로 흩어진다. 적은 수에 적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배로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윤명희 집사

{교회소식}

1. 2004년 제직수련회

올해 첫 제직수련회가 2월 8일(주일)~9일(월) 오후 7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직들은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함줄함을 휴간

다음주 함줄함울은 설날 연휴 관계로 한 주 휴간합니다.

3. 신앙사경회

신앙사경회가 2월 23일(월)~25일(수)까지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1월 26일(월)~29일(목)까지 경기도 여주 구로중앙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All Nations 경배와 찬양학교 24기에 참가합니다.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모실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3부 예배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부모들을 위해 1층에서 자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향과 영상이 모두 준비되어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상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자모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합니다.

{교역자 동정}

1. 윤덕영 목사가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 이사했다.

2. 신임교역자 연락처

* 우동운목사 : 011-412-9102, 자택) 575-7773

* 이 호목사 : 011-496-2334, 자택) 3412-2339

* 정영환목사 : 011-9618-3124, 자택) 6081-3124

* 윤은성목사 : 017-566-1207, 직장) 751-4242

{교우 동정}

1. 한윤경 장로는 2004년 한 해 안식년을 갖는다.

2. 양동훈 장로가 1월 15일 제1기 장신대 리더십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3. 이사: 윤덕영 목사,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자택, 2057-0266)

4. 개업: 한상곤 집사, 대산팰리스(건축시행회사, 544-2581)

5. 돌 감사예배: 손달진 안수집사와 신관수권사의 손녀, 손용덕 이하숙 성도의 딸 손수민 양(1월 16일, 국일관 7층).

6. 환자기도: 김해련A 집사(항암치료후 왕성한 식욕으로 인해 고통중)

7. 환자기도: 김형일(최재경) 집사 부친(75세) 결석 제거 수술후 퇴원

* 지난 주 토요일(10일) 저녁 6시 30분 강남구 신사동 535-9 금화빌딩 401호에서 JMC(J&M communications) 디자인 전문 회사 이전 개업 예배를 드렸다. JMC는 3교구 14구역의 이영미 집사(부군 전용권 집사)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이다. 이영미 집사는 오랫동안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겨왔다. 이 날 예배에는 전현직 중등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이전개업을 축하하며 그 앞길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자리가 되었다.

* 박종규 안수집사와 박귀희 집사의 장녀 박신정 양이 지난 1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A3층)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주례 가운데 신랑 김형욱 군이 섬기는 대구 남산교회 박재수 목사의 기도와 모테트 합창단의 축가로 진행되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불구하고 양가 교회와 친지들이 많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안고 성지순례단 돌아오다

1월 4일에 출국했던 성지순례단(이창현 목사 인솔하에 총 34명 참가)이 15일(목요일) 17시 5분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입국했다.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11박 12일의 성지 순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순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